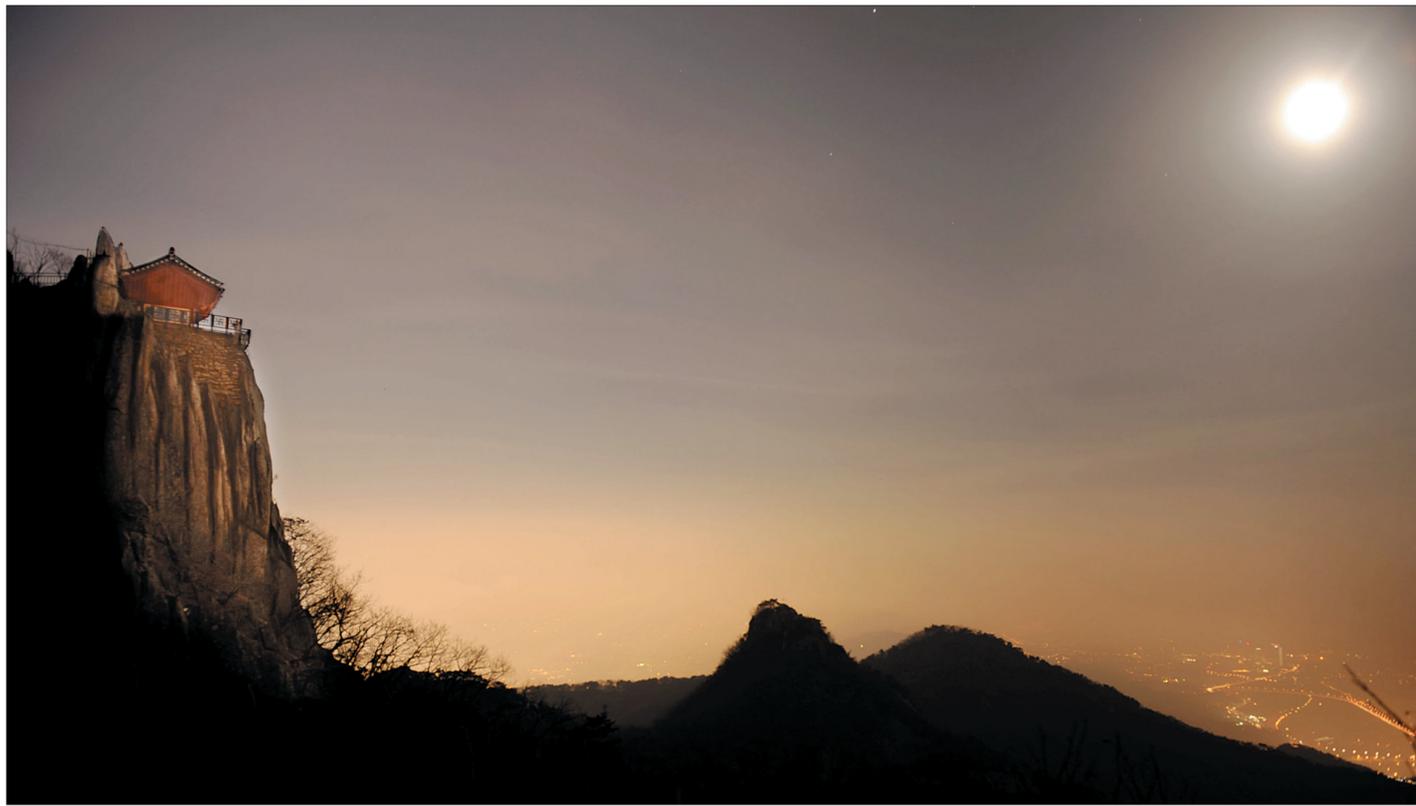


##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보내며...



믿음으로 능히 모든 흐름 건너고/ 방갈하지 앎으로 큰 바다 건너며/ 정진으로 능히 괴로움 버리고/ 지혜로써 맑고 깨끗한 세상 이루어라... 관악산 연주암=김형주 기자

## “다종교사회 갈등 넘어 상생”

총무원장스님, 이슬람 사원 방문  
X-마스 이브엔 개신교시설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와 개신교 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을 잇따라 방문하고 종교간 상생과 공존을 위해 적극 나섰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3일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방문해 이슬람교와의 유대관계를 다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다종교 사회에서 갈등은 지양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최근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가톨릭이 다름 없이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섞여있는데 다종교, 다문화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화 이맘은 “불교와 이슬람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와 함께 종교간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증오범죄법 입법화와 2013년을 계획

으로 준비 중인 세계종교지도자포럼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임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예배실과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차례로 둘러봤다.

다음날인 24일에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인 서울 은평천사원을 방문하고 조규환 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조규환 원장은 “최근 조계사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들 뉴스를 통해 봤다”면서 “종교 간의 불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스님의 뜻이 사회에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장애인 보육 시설을 방문해 선제의 선물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다. 같은 날 오후 총무원장 스님은 사랑의 종이 울리는 구세군 자선냄비 현장에도 방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서울 명동 입구에 마련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동짓날, 민족문화수호 열기 뜨거웠다

전국 사찰에서 정부여당 규탄...종단의지 홍보

지난 22일 동짓날, 전국 사찰에서 한복소리로 민족문화수호의지를 다졌다. 동지불공 중심으로 동지행사를 펼쳐온 사찰들은 일제히 소동부채의 정부·여당을 향해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사찰은 물론, 전국 사찰은 총무원에서 하달한 ‘동지법문’을 골자로 동시다발적인 동지법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했다. ▶관련기사 6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동짓날 정오 대웅전 앞마당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천명하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동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부주지 도문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이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문화재 인식과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한 날선 비판이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일제히 손 피켓을 흔들며 ‘종교차별정책 중단’과 ‘서민 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그동안 불교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과 문화재를 보호하며 잘 가꾸어왔다”며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족문화를 푸대접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 잡고 문화재를 수

호하는 일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계사 사부대중은 결의문을 통해 “조계사 사부대중은 역사와 민족 앞에 이 땅을 지켜내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저들을 제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선목스님)도 지난 22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지법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법사로 나선 도선사 주지 선목스님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불교의 위상과 노력을 무시한 채 새해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계승을 위한 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문화팀

### 선지식과 신학자의 만남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31일부터 2011년 1월5일까지 제9교구본사 동화사, 부산 해운정사,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등지에서 ‘초조대장경 1000년, 밀레니엄 평화토크’를 개최한다.

총무원, ‘밀레니엄 토크’ 개최  
진제스님-폴 니터 교수 대화

‘가슴을 열어 빛을 보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오는 31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스님과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니터 교수가 만나 ‘종교간 평화의 대화’를 주제로 불교와 기독교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1월1일에는 진제스님의 신년 법어와 ‘부처님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를 주제로 폴 니터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1월2일부터 4일까지 부산 해운정사에서 해운정사 수좌스님과 부산 시민이 함께 하는 평화발원 자비명상 법회, 범어사 순례 등의 행사가 이어지며, 1월5일에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내적 평화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대화마당이 펼쳐진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신재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 <문서기록> (사진, 녹음테이프) <근스님유품 및 박물관> (불족 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신문사

## 종단 교수아사리(교수시) 위촉에 따른 신청 안내 공고

종단은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에 의거하여 승가교육에 필요한 교육과 학술연구를 담당할 ‘종단 교수아사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종단 교수아사리’로 위촉 받고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제도란?

예로부터 승가는 화상 이외에 교육을 전담할 지도자로서 아사리를 위촉하고 출가한 스님들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2,600년의 승가전통을 이어받아 조계종에서도 불교학을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스님들을 종단의 교수아사리로 위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촉된 ‘종단 교수아사리’ 스님들은 매년 소정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종단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담당하거나 종단의 승가교육기관에서 학인스님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 선발 분야 :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불교사, 응용불교

■ 접수 기간 : 2010년 12월 17일~2011년 1월 28일까지

■ 신청자격

-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스님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인 스님

- 승가대학원(울원, 학림 등)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인 스님
- 승가대학원(울원, 학림 등) 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번역 및 연구 성과가 있는 스님

### ■ 신청 방법

- 소정의 제출서류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지원하시고자 하는 선발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 수행이력서(종단양식)
  - 자기소개서(주요 교육, 연구업적, 경력 등)
  - 교육 및 연구 계획서
  - 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학위논문 각 1부씩
- 최근 4년간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공 분야 저서, 전공분야 역서 등 각종 연구 성과물)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

- 2011년도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을 위한 심사는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 6조에 의거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선발 인원은 총 20명, 각 분야별 3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면접심사: 2011년 2월 중순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 ■ 위촉

2011년 2월 중순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스님들에게 ‘종단 교수아사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 ■ 특전

- 종단이 인정하는 교수아사리로 위촉
- 위촉된 교수아사리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
- 종단의 각종 교육기관(특수교육기관 제외) 교육교역자의 임용시 우선 추천

###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E-mail: amita031@buddhism.or.kr  
 전화: 02)2011-1818

■ 종단은 향후에도 매년 20~30명 정도의 종단 교수아사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불기 2554(2010)년 12월 17일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